

[후원어린이와 후원자, 목사 등의 편지 발췌본]

کم패션 가족 소식

“저는 편지를 쓰고 약간의 달러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디다. 저는 그분께서 한국과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과부이고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우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간호사 선생님과 여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보육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성경 이야기 책을 받았고 매우 즐겁게 읽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이 편지를 써요. 저는 후원자님이 이런 책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 김정자(Kim Jung Ja) (کم패션은 2,800 권의 성경 이야기책을 400 개의 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김상세 목사님(REV. KIM SANG SE)은 이렇게 썼습니다. "박영옥 목사님(Rev. Pak Young Ok)이 삼척읍, 연평, 정곡, 묵곡, 가평, 강주, 대산, 신평, 남해-무린, 평산, 엄정, 송곡, 갈천을 방문하셔서 전도집회를 여신 이후로 교회들이 영적 부흥의 행진을 하고 있으며, 교회마다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울곡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 목사님(Rev. Pak)은 위스콘신 가족의 후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전도사 중 한 명입니다.)

미시간(MICHIGAN)의 한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남자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한 20 달러짜리 수표를 동봉하였습니다. 보육원 사역과 이곳의 영혼을 구하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 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후원자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요. 매일 좋은 식탁에 앉을 때와 좋은 옷을 입을 때,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해요. 한국에서 수십만 마일 떨어져 있지만, 저는 후원자님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후원자님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려요." - 박위선(Wee Sun Park), 12 세 소녀

"제가 후원한 고아 소년의 친척이 그 어린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나는 어린이가 그의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어린이들을 돕는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 크리스천 소년이 발견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가 다른 청소년을 후원할 수 있게 연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추운 날씨를 대비해 따뜻한 옷을 넣은 상자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한국복음디지털네트워크(KGDN)의 방송을 듣고 한국 고아를 후원한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훌륭한 사역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시작하지는 못 해왔습니다. 후원할 어린이에 대해 여러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하며, 마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신이 납니다. 저는 두 명의 아이가 있는 과부이며, 9 살 아이들의 주일학교 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들들뿐 아니라 주일학교 학급에도 실제적인 선교적 관심을 끄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선교 기금에 적지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명은 남자 어린이, 다른 한 명은 여자 어린이로 두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